

초상화에서 찾아 본 조선시대 눈꺼풀의 형태

황 건조현중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morphology and preference of the eyelid shape of the Chosun dynasty.

One hundred and one portraits of Chosun dynasty were analyzed. Portraits of early(1392-1550), mid(1551-1700), and late (1701-1910) Chosun dynasty were 26, 17 and 58 respectively. The most of the portraits were men of noble birth(86). Others were the portraits of the Kings(4) and Monks(4), Women(4) and patriots(4).

The double fold were observed in 20%, among them 65% were outfold. Epicanthal fold were present in 16% Thirty-one% had hooding of the upper eyelid. Sixty nine% had Wrinkles of the lower eyelids. Sixty three had baggy lower eyelid and lower lid ectropion were observed in 6% and 1%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Korean aphorism of the portrait drawing of Chosun dynasty "If one hair is different, the portrait is another man's", the portraits were drawn like a photograph. In this aspect our attempt to light up the eyelid shape of several hundreds years ago when photographs were not available have validity.

Key Words: Eyelids, Portraits, Chosun dynasty, Double fold, Epicanthal fold

Eyelid Shape of the Chosun Dynasty: Analysis of 101 Portraits

Kun Hwang, M.D., Ph.D.,
Hyun Jong Cho,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본 연구는 2003년도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진흥비 보조로 이루어졌음(INHA-
Research grant 2003).

Address Correspondence: Kun Hwang,
M.D., Ph.D., Inha University Hospital, 7-206
Shinheung-dong, Choong-gu, Incheon 400-711,
Korea. Tel: 032-890-3514, Fax: 032-890-2918,
E-mail: jokerhg@inha.ac.kr

I. 서 론

눈은 다른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띄며 눈의 생김새는 용모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눈성형수술(oculoplastic surgery)을 자주 시행하는 성형외과 의사와 안과 의사에게 있어서는 정상 눈꺼풀의 계측치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의 경우 거의 다 쌍꺼풀을 갖고 있는데 비해 일본인은 40 - 60%가 쌍꺼풀을 갖고 있고, 한국인은 40 - 50%가 쌍꺼풀을 갖고 있다.^{1,2}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생활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한국 남성의 약 54%, 여성의 약 63%에서 눈구석주름들이 관찰되며 나이가 적을수록 눈구석주름의 빈도가 높고 나이가 들에 따라 낮아진다고 한다.³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인 눈꺼풀의 형태에 대해서는

계측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조상들이 어떤 빈도로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는지, 눈구석주름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긴 눈을 선호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밝히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초상화에서 그 당시 한국인 눈꺼풀의 형태를 알아내고자 이 연구를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가. 재 료

1392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려진 초상화 101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적 분류로는 어진(임금의 초상화) 4점, 승상(고승들의 초상화) 4점, 여인의 초상화 4점, 우국열사 3점, 그리고 공신과 사대부가 86점이었다. 시기별로는 전기(1392-1550)가 26점, 중기(1550-1700)가 17점, 후기(1701-1910)가 58점이었다. 초상화의 눈꺼풀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충분한 크기로 그려지고, 보

관상태가 좋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훼손이 심하거나 도판이 작아 눈꺼풀의 관찰이 어려운 것은 제외하였다. 비록 얼굴이 크게 그려진 경우라도 풍속화, 도석화 등은 제외하였다.

나. 방 법

관찰방법으로는 초상화를 친견하거나 도록으로 관찰하였다.⁴⁻⁶ 초상화의 눈꺼풀에서, ① 쌍꺼풀의 유무, 쌍꺼풀인 경우, ② 안주름(infold)인지 바깥주름(outfold)인지 여부, ③ 눈꺼풀주름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그밖에 ④ 위눈꺼풀의 늘어짐(holding of upper eyelid), ⑤ 아래눈꺼풀의 주름, ⑥ 주머니모양의 아래눈꺼풀(baggy eyelid), ⑦ 까마귀발 주름(craw's feet), ⑧ 위눈꺼풀꺼짐(sunken eyelid), 눈꺼풀겉말림(ectropion) 등을 찾아보았다.

III. 결 과

가. 쌍꺼풀의 빈도

총 101개의 초상화 중에 20점(20%)에서 쌍꺼풀이 있었다. 시기별로는 전기 26점 중 5점(19%), 중기 17점 중 3점(18%), 후기 58점 중 12점(21%)에서 쌍꺼풀이 관찰되어 시기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빈도를 보였다(Fig. 1). 쌍꺼풀을 가진 20점이 모두 남자였으며, 여인상 4점 중에서는 단 한 점에서도 쌍꺼풀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2).

나. 쌍꺼풀의 형태

20점의 쌍꺼풀이 있는 초상화 중 바깥주름이 13점(65%)로서 안주름(7점, 35%)보다 많았다(Fig. 3).

다. 눈구석주름

식별 가능한 49개 얼굴 중 눈구석주름이 없는 경우가 41예(84%)로 눈구석주름이 있는 경우(8예, 16%) 보다 많았다(Fig. 4).

라. 위눈꺼풀의 늘어짐

식별 가능한 72개 얼굴중 위눈꺼풀의 늘어짐이 22예(31%)에서 관찰되었다.

마. 아래눈꺼풀의 주름

식별 가능한 72개 얼굴 중 아래눈꺼풀의 주름이 50예(69%)에서 관찰되었다.

바. 주머니모양 아래눈꺼풀

식별가능한 72얼굴 중 주머니모양 아래눈꺼풀이 45예(63%)에서 관찰되었다.

사. 까마귀발 주름

식별 가능한 72얼굴 중 까마귀발 주름이 41예(60%)에서 관찰되었다.

아. 위눈꺼풀꺼짐, 아래눈꺼풀걸말림

식별 가능한 72얼굴 중 위눈꺼풀꺼짐, 아래눈꺼풀걸말림이 4예(6%)와 1예(1%)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IV. 고 찰

한국인에서 시대에 따라 눈꺼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긴 눈을 선호하였는지는 그동안 얼굴 등 우리 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의 관심사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저자들은 1392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려진 초상화 101점의 눈꺼풀 관찰을 통해 조선시대의 초상화에서 그 당시 한국인 눈꺼풀의 형태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초상화중에 시기와 관계없이 20%에서 쌍꺼풀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현대 한국인의 40 - 50%에 이르는^{1,2} 쌍꺼풀의 빈도에 비해 적었다. 이 결과만으로는 마치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한(韓)민족의 모습이나 눈모양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한국인이 한반도에서 약 5천년간 간헐 살면서 국제결혼이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서구적인 것을 지향하는 가치관만으로 우리의 외모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황건 등⁷이 미인도의 계측학적 분석에서 조선시대 미인은 홑꺼풀이며 눈꺼풀틈새 높이가 낮다고 보고한 바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홑꺼풀이 고즈넉한 인상으로 더 선호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초상화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측한 결과 황건 등⁸은 81%에서 눈구석 주름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박대환 등³은 한국 남성에서 약 54%, 여성의 약 63%에서 눈구석 주름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눈구석 주름이 없는 경우가 84%로 눈구석 주름이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이런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공신과 사대부처럼 나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초상화였기 때문에, 눈구석주름의 빈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도 눈의 노화로 윗눈꺼풀의 늘어짐이 31%, 아래눈꺼풀의 주름이 69%, 주머니 모양의 아래눈꺼풀이 63%, 까마귀 발주름이 60%에서 관찰되었다.

초상화란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인물을 그려내는 회화로서 크게 보아 인물화의 일부분에 속한다. 초상화란 단어는 근래에 주조된 용어로서, 선인들의 문헌기록이나 시문을 보면 초상화를 일컬어 진(眞)·영(影)·진영(眞影)·영상(影像)·화상(畫像)·영정(影幀)·영첩자(影帖子) 등으로 지칭해왔다. 초상화 제작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이라는 취지 하에 대상인물에의 퓌진(逼眞)을 위해 초상화가들은 화력(畫力)을 기울여왔으며, 관상자(觀賞者)의 경우에도 대상인물의 사형(寫形)만이 아니라 사심(寫心)마저 가능해야佳作(佳作)이라는 엄격한 감식안(鑑識眼)이 작용했다.⁹ 따라서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사진기술이 발달되기 이전

인 조선시대 사람들의 얼굴, 특히 눈꺼풀을 관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Fig. 6).

전신(傳神)이란 전신사조(傳神寫照)가 줄어서 된 말로서 중국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愷之)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전신사조에 있어서 사조란 작가가 관조한 대상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전신은 그 대상 속에 숨겨 있는 신 즉 정신(精神)을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신사조란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중기의 인물인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수록된 『사형자찬(寫形自贊)』을 보면 「형태는 유형이나 정신은 무형이다. 유형은 그려도 무형은 그리지 못한다. 형체가 잡혀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유형한 것이 쇠하면 무형한 것도 물러가며, 형체가 다하면 정신도 떠난다」라고 하여 사조를 통한 전신의 필요성을 풀이하고 있다.⁷

조선시대의 초상화에는, 초상화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睛(點睛) 및 전반적인 눈의 표현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니, 한국 초상화에서는 얼굴의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서 시선(視線)이 처리되며, 눈의 형상도 실제 그대로를 옮긴 듯 과장되지 않게 처리된다. 즉 초상화들이 거의 일정한 각도로 그려졌으므로, 저자들이 눈꺼풀의 형태를 일관성 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

미술작품을 조망해 보면, 과거 또는 현재 한국인의 모습, 혹은 삶의 표정을 작품 속에서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기가 없던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눈꺼풀의 형태를 추정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조선시대의 초상화 101점의 눈꺼풀을 관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쌍꺼풀이 20%에서 관찰되었고 그 중 65%가 바깥주름이었다.
2. 눈구석주름이 16%에서 있었다.
3. 위눈꺼풀의 늘어짐이 31%에서, 아래눈꺼풀의 주름이 69%에서, 주머니모양의 아래눈꺼풀은 63%에서 있었으며, 까마귀발주름도 60%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4. 위눈꺼풀의 꺼짐은 6%에서, 아래눈꺼풀 걸말림이 1%에서 있었다.

REFERENCES

1. Park YK, La TK: Interpupillary distance and Inter-inner canthal distance of Koreans. *J Korean Opth Soc* 16: 371, 1975
2. Park DM, Song JW, Han KH: Anthropometry of normal Korean eyelids. *J Kor Soc Plast Reconstr Surg* 17: 822, 1990.
3. 박대환: 동양인 안검미용수술의 술전평가, 백봉수, 박대환: *안성형외과학*, 군자출판사, 1997, p 163
4. 조선미: 한국초상화 연구, *열화당미술신서* 34, 열화당 1983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4, p 83
6. 호암미술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서울, 삼성문화재단, 1999, p 30
7. 조현중, 황건: 조선시대의 미인은 일본 에도시대의 미인이나 오늘날의 한국미인과 달랐을까? 미인도의 계측학적 분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8: 91, 2002
8. 황건: 한국인 성인 눈 사이 거리에 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3: 9, 1994
9. 조선미: 한국초상화의 성격적 특성, 맹인제, *한국의 미* 20, 인물화, 중앙일보사, 1988, p 18